



전남도립미술관은 오는 9월 3일까지 'Occupy: 우리는 연결되고 점유한다'를 주제로 국제전시를 진행한다. 인도네시아 작가 에코누그로호의 '혼돈 속의 아름다운 시간'.

우리는 연결되고 새로운 미래를 점유한다

“폭격 등 실제 전쟁의 소리를 재현했습니다. 현재 로선 전쟁을 중지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하죠. 러시아는 구소련 붕괴 이후 지속적으로 영토를 넓히는 전략을 구사해오고 있습니다. 전시실에서는 생존 위험에 처한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이번 전시는 함께 연대하고 그 연대를 매개로 ‘점유한다’는 데 의의가 있죠.”

우크라이나, 폴란드 작가들로 구성된 'Open Group'은 전남도립미술관 국제전시 'Occupy: 우리는 연결되고 점유한다' (10일~9월 3일)에 참여하는 의미가 남다르다.

전시 오픈에 앞서 9일 가진 간담회에서 Open Group은 “현 상황에서 평화를 바라는 국제사회의 연결, 연대가 절실하다”며 “전쟁 초창기에는 국제 사회 지원도 많았지만 점차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번 전시는 오늘의 세계적 상황, 국내적 상황과도 맞물려 눈길을 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을 비롯한 세계 곳곳의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데다 얼마 전까지 윤석열 파면을 둘러싼 우리의 찬반 대립도 심각했다.

이지호 도립미술관장은 “이번 전시는 ‘점유하는

광장’을 모티브로 인간 존엄과 공동체적 연대를 환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Occupy’는 단순히 공간을 차지하는 것을 넘어 빈 자리에 이야기를 채우고 침묵에 목소리를 더하는 행위로 확장된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의 관점에서 ‘Occupy’는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 제한되지 않는다”며 “질문을 던지고, 예술로 답하며, 타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방식으로 연결을 도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시에서는 권승찬, 이세연, 이산 등 한국 작가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중국, 홍콩 등 모두 9명 작가 20여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작품은 전시실 입구 벽면을 가득 채운 인도네시아 에코 누그로호의 ‘혼돈 속의 아름다운 시간’. 무질서해 보이면서도 나름의 조화로움 미가 투영된 작품은 환상적이면서도 신비롭다.

작품 주제에 대한 질문에 에코 누그로호는 “열핏 판타지로 볼 수 있겠지만 회화 작품이다. 현실의 부조리와 불의 등을 풍자적으로 묘사했다”며 “그리는 행위를 통해 전시 주제인 ‘Occupy’를 실현하는 것은 물론 세상의 정보를 우리가 ‘점령한다’는 의미를 포괄한다”고 답했다.

전남도립미술관 국제전시

‘Occupy’

한국·우크라·홍콩 등 작가 참여

‘점유하는 광장’ 모티브 9월3일까지

인간의 존엄·공동체적 연대 환기

화려한 색감, 신화적 분위기, 만화적 상상력은 역설적으로 사회 부조리와 폭력 등을 은유한다. 입구부터 벽면, 옆쪽의 유리창까지를 뒤덮은 그림은 전시실 뿐 아니라 미술관 내부를 이색적인 분위기로 물들인다.

역사적 사건과 일상적 사건을 중첩해 사진으로 표현한 이세연 작가의 ‘에피소드 시리즈’는 전시라는 기존 형식을 탈피했다.

이 작가는 “역사적 사건이 돼버린 사진들과 일상적 삶을 담은 신문을 활용해 벽화처럼 구현한 점이



이세연 작가의 옛도청 복원 전 모습과 촛불시위를 담은 ‘에피소드 시리즈’.

특징’이라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12·3 계엄, 제주항공 사고, 산불사태 등 너무 많은 사건 사고가 있어났다. 현장에 다가가다 보면 사고너머의 다른 공간에는 또 다른 누군가의 일상이 존재

한다는 사실을 마주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권승찬 작가의 회화 ‘무기력한 풍경’과 ‘당신은 불편한 진실을 온전히 마주할 수 있는가?’는 연동돼 있다. 전자는 보도연맹 사건 당시 학살지, 매장지, 수장지 등을 답사하고 그린 작품들이며 후자는 기억의 복원과 증언을 담은 설치 작품이다. 권 작가는 “보도연맹 사건으로 제 고향 장흥을 비롯해 남도에서도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했다”며 “여러 지역의 리서치를 통해 금기시했던 당시 희생자들과 끔찍했던 국가 폭력의 실체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전하고 싶었다”고 했다.

‘타자와 더불어 볼을 이룬다’를 출품한 이산 작가는 ‘광장’이라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구현한 설치작품을 선보인다. 이 작가는 “설치 작품의 중요한 배경이 되는 이불은 광장을 상징한다”며 “이불 틈 사이에 마이크를 배치한 것은 광장은 한두 사람이 아닌 많은 이들의 목소리와 행위로 그 의미가 구현된다는 사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세령 학예사는 “이번 국제 전시는 최근 이슈에 발맞추기 위해 기획됐다”며 “광장의 울림은 국내뿐 아니라 국외적으로도 연대의 의미를 함의한다”고 전했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대명매-2 희망의 기다림’

순간의 풍경 사진, 그림을 품다

조영신 사진전, 12~18일 무등갤러리

일반적으로 무슨 일이든 10년을 하면 전문가가 된다고 한다. 틀린 말이 아니다. 마음을 다하고 열정을 쏟아 부으면 결국 의미있는 결실을 맺게 된다.

조영신 사진작가는 10년간 인물, 풍경, 자연 등 다채로운 대상을 렌즈에 담아왔다. 그동안 전업주부로 집안일에만 신경을 쓰는 동안 사진에 대한 열망은 꼭 늘려왔다. 그러다 1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대상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우연히 카메라를 든 순간 제 삶은 새롭게 열리기 시작했다”는 작가의 말처럼 “순간을 담고 다시 꺼내어 보는 일은 큰 기쁨이자 위안으로 다가왔다”고 했다.

조영신 작가가 10년의 작품 활동 여정을 선보이는 전시를 연다.

무등갤러리에서 12일부터 18일까지 펼쳐는 전시 주제는 ‘The Earth-사진이 그림을 품다’.

조 작가는 순간의 풍경과 순간들을 담은 작품에 AI기술을 활용해 수채화와 유화의 감성을 입혔다. 39점 작품은 가장 본질적인 피사체는 사진을 주(主)로 하고, 주위 배경이나 분위기는 회화적 기법

으로 구현했다.

조 작가는 당초 간혹학을 전공해 전업주부로 생활하다 뒤늦게 사진의 매력에 빠졌다. “포토샵을 공부하는 동안 다양한 기능을 사진과 접목해 ‘사진과 그림’이 융합된 작품을 하게 됐다”며 “세계적 변화를 현장에서 먼저 보고 느끼고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받은 감동을 많은 이들과 공유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전시는 ‘사진’, ‘인물’, ‘조류’, ‘회화’ 등 작가가 포착했던 ‘순간 속 영원’의 다채로운 모습들로 구성돼 있다. 현실 위에 회화적 해석을 더한 작품들은 익숙한 듯 낯선 듯 이색적인 분위기를 발한다.

조 작가는 이번에 ‘대명매-1’, ‘대명매-2’ 두 작품을 전남대병원에 기증하기도 했다. 전남대 본관에 있는 대명매의 겨울 풍경과 봄 풍경을 조점화한 작품들은 시련과 역경을 견디고 봄을 맞는 희망과 기쁨을 선사한다.

그는 “사진 한 장 한 장에는 따스한 시선과 순간 순간의 이야기들이 투영돼 있다”며 “환우들과 가족들, 병원 구성원들과 함께 매화에 투영된 의미를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음악이 흐르는 초여름의 문턱



빛고을아트스페이스에서 오는 12일 공연을 펼치는 금관 5중주 앙상블 ‘협동조합 효성’.(광주문화재단 제공)

광주문화재단, 6월 ‘목요콘서트’…12일 ‘협동조합 효성’ 첫 공연

초여름의 문턱, 6월의 목요일마다 빛고을의 저녁이 아름다운 선율로 물든다.

광광주문화재단이 6월에도 시민들이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즐기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목요콘서트’를 이어간다. 공연은 오는 12일부터 3주간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광주 남구 구동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우선 첫 무대는 오는 12일 금관 5중주 앙상블 ‘협동조합 효성’이 ‘Brass Romantica’ 공연을 선보인다. 아르투로 마르케스의 ‘Danzon No. 2’, 히사이시 조의 ‘하울의 움직이는 성’ OST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통해 금관악기의 따뜻하고 풍성한 울림을 전한다.

19일에는 ‘광주 트럼펫 콰이어’가 ‘Trumpet Brilliance: 빛을 머금은 소리’라는 테마로 무대에 오른다. 이윤신, 오창훈, 김광현 등 뛰어난 트럼펫 전공자들이 에릭 모랄레스, 마커스 그랜트 등 현대 작곡가들의 다채로운 음악 세계를 펼쳐낸다.

26일 마지막 무대는 ‘포레스트’가 장식한다. ‘클래시네마: 영화 클래식에 물들다’를 주제로 영화 속 감동적인 장면과 함께 어우러진 클래식 음

악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품격 있는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포레스트는 뮤지컬, 생활예술 콘서트 등을 통해 지역 공연예술 저변을 넓히고 있는 팀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 또는 광주문화예술통합플랫폼 ‘더이마이광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노회용 광주문화재단 대표는 “6월 목요콘서트를 통해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무대를 응원하고,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입장료 5000원.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피에르 파올로 파솔리니 사후 50주년 특별전

광주영화영상인연대, 18~22일 광주독립영화관

세계 영화사의 전설, 피에르 파올로 파솔리니의 영화가 광주에서 다시 빛을 발한다.

광주영화영상인연대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간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사후 50주년 피에르 파올로 파솔리니 특별전’을 연다. 이번 특별전은 주한이탈리아문화원, 서울아트시네마, 광주영화영상인연대가 공동 주최하고, 영화진흥위원회와 광주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후원한다.

파솔리니는 시인이자 소설가, 영화감독으로서 시대의 억압과 모순을 예리하게 통찰한 이탈리아

의 거장이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그가 남긴 대표작 5편이 스크린에 오른다. 거리의 매춘부와 아들의 삶을 통해 모성과 절박한 인간애를 그려낸 ‘맘마 로마’를 시작으로, 1963년 전후의 정치·사회적 사건을 시적이면서도 날카롭게 조망한 ‘분노’, 성경 마태복음을 바탕으로 예수의 생애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마태복음’이 관객과 만난다.

이어 인간의 탐욕과 폭력을 카니발적 알레고리로 그려낸 ‘돼지우리’, 파솔리니의 유작이자 인간 본성에 대한 가장 급진적인 고발로 평가받는 ‘살



라는 세계영화사의 거인’을 통해 감독의 작품 세계와 철학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

행사의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광주독립영화관 SNS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반 1만원, 디트릭스·현장 예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